



정답과 해설

1·2

초등 국어



1. 기분을 말해요

핵심 확인 문제

10쪽

- 1 흥내 내는 말 2 × 3 오래
4 (2) ○ 5 나

준비

배울 내용 살펴보기

11쪽

- 1 (1) ③ (2) ② (3) ① 2 ①, ②
3 ④ 4 기뻐요 / 고마워요

- 그림 ㉠은 수영장에서 신나게 노는 상황, 그림 ㉡는 아파서 누워 있는 상황, 그림 ㉢는 친구에게 생일 축하를 받는 상황입니다.
- 그림 ㉠은 수영장에 간 상황이므로 ‘신나요’, ‘즐거워요’ 등의 기분을 나타내는 말이 어울립니다.
- 그림 ㉡는 아파서 누워 있는 상황이므로 ‘속상해요’, ‘걱정돼요’ 등의 기분을 나타내는 말이 어울립니다.
- 그림 ㉢와 같이 친구에게 생일 축하를 받는 상황이라면 ‘기뻐요’, ‘고마워요’와 같은 기분을 나타내는 말이 어울립니다.

소단원 1

기본 흥내 내는 말 알기

12쪽

- 1 ④ 2 (1) ② (2) ① (3) ② (4) ①
3 (1) ② (2) ① (3) ④ (4) ③
4 예 문장의 내용을 더 실감 나게 만들 수 있다.

- ‘가을바람’은 모양이나 소리를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정답 친해지기 ‘야옹’은 소리를 나타내는 말, ‘쌍쌍’은 모양이나 소리를 나타내는 말, ‘둥실둥실’과 ‘살랑살랑’은 모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 ‘깡충깡충’, ‘둥실둥실’은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고, ‘깡깡’, ‘짜깡짜깡’은 소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 ㉠~㉣에 어떤 흥내 내는 말이 들어가야 문장의 내용

이 더 실감 나게 느껴질지 생각해 봅니다.

- 흥내 내는 말을 사용하면 문장을 재미있게 만들어 쓸 수 있고, 문장의 상황이 기억에 더 오래 남습니다. 또 문장을 실감 나게 만드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생동감 있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문장을 만들 때 흥내 내는 말을 사용하면 좋은 점 가운데에서 한 가지 이상을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소단원 1

통합 흥내 내는 말을 넣어 문장 만들기

13~14쪽

- 1 ①
2 예 신났다. / 뿌듯했다. / 자랑스럽다.
3 (1) ② (2) ①
4 예 병원에서 예방 주사를 맞을 때 가슴이 두근 두근 떨렸다.
5 (깜짝) 놀랐다.
6 ⑤ 7 ③, ⑤ 8 ④

- ‘나’는 떨어져 노랫말이 떠오르지 않은 것입니다.
- 다른 친구들이 못한 것을 자신이 혼자 해냈다면 신이 나고 뿌듯하면서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 떨리고 긴장했을 때는 ‘얼음처럼 꽁꽁!’, 자랑스럽고 뿌듯했을 때는 ‘보석처럼 반짝반짝!’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꽁꽁’은 물체가 매우 단단히 언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고, ‘반짝반짝’은 작은 빛이 잠깐 잇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 긴장하거나 무서워서 떨렸던 경험을 먼저 떠올려 보고, 그때 기분을 표현할 수 있는 흥내 내는 말을 넣어 문장으로 써 봅니다.

채점 기준 긴장하거나 무서웠던 본인의 경험을 담아, 상황에 어울리는 흥내 내는 말을 써서 문장으로 표현하면 정답으로 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긴장하거나 무서워서 떨렸던 경험을 먼저 떠올린 다음에, 그 경험에 어울리는 흥내 내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 ‘민호가 달려들어 깜짝 놀랐어.’라고 하였습니다.



- 6 만든 성이 민호 때문에 무너져서 ‘나’는 민호에게 화가 났습니다.
- 7 글 ③, ④에 쓰인 흥내 내는 말은 ‘깜짝’, ‘찌지직’, ‘와장창’, ‘우르릉 쿵쿵’입니다.
- 8 ‘와장창’은 ‘갑자기 한꺼번에 무너지거나 부서지는 소리나 모양.’을 흥내 내는 말입니다.

정답 친해지기 ①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는 ‘후드득’이라고 표현합니다.
② 얼음이 매우 단단히 언 모양은 ‘공꽁’이라고 표현합니다.
③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는 모양은 ‘살랑살랑’이라고 표현합니다.
⑤ 종이가 산들바람에 날리는 모양은 ‘나풀나풀’이라고 표현합니다.

소단원 2 기본 기분을 나타내는 말 하기 15쪽

- 1 ①
2 예 아기는 인형을 잃어버려서 슬퍼요.
3 ④, ⑤ 4 ①

- 1 아이가 활짝 웃는 표정이므로 ‘기뻐요’가 어울립니다.
- 2 그림 ㉠에는 ‘슬퍼요’가 어울립니다. ‘슬퍼요’를 넣어 문장을 만들어 써 봅니다.

채점 기준 그림에 어울리는 기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쓰고, 문장을 완성하면 정답으로 합니다.

- 3 자신이 만든 성을 훈이가 무너뜨린 상황이므로 ‘속상하다’, ‘화가 난다’가 알맞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③ ‘미안하다’는 수영이가 만든 성을 무너뜨린 훈이의 기분으로 알맞습니다.

- 4 속상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라도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여 화를 내지 않고 차분히 말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며 자신의 기분을 말하는 방법

-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 그때의 솔직한 자신의 기분을 생각해 봅니다.
- 솔직하게 말했을 때의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해 봅니다.
- ‘나’라는 말로 시작하며 정리한 생각을 말합니다.

소단원 2 통합 듣는 사람을 생각하며 자신의 기분 말하기 16~17쪽

- 1 버럭쟁이 2 ③ 3 ⑤
4 (1) ② (2) ① 5 ⑤ 6 (3) 〇
7 예 나는 구름 때문에 친구들이랑 놀 수 없어서 슬퍼요.
8 (1) 예 나는 내 책이 우유에 젖어서 (2) 예 많이 속상했어.

- 1 도치는 화를 내며 말하는 버릇이 있어서 버럭쟁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 2 도치가 화를 내며 말할 때마다 나쁜 말 구름이 점점 커졌습니다.
- 3 도치가 듣는 사람을 생각하며 예쁘게 말하자 나쁜 말 구름이 사라졌습니다.
- 4 ‘버럭버럭’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고, ‘소곤소곤’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 5 제시된 뜻을 가진 낱말은 ‘감쪽같이’입니다.

정답 친해지기 ① ‘버릇’은 오랫동안 자주 반복하여 몸에 익은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② ‘평평’은 눈물이 세차게 쏟아져 나오는 소리, 또는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③ ‘어디선가’는 잘 모르는 어느 곳에선가라는 뜻입니다.
④ ‘사이좋게’는 서로 정답게 또는 친하게라는 뜻입니다.

- 6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해서 말한 것을 찾습니다.
- 7 ‘나’라는 말로 시작하고, 듣는 사람을 생각하며 있었던 일과 기분을 씁니다. ㉡에서 도치는 구름 때문에 친구들과 놀 수 없어 슬퍼서 평평 울었습니다.

채점 기준 듣는 사람을 생각하며 ‘나’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었던 일과 그때의 기분을 알맞게 문장으로 표현하면 정답으로 합니다.

- 8 (1) ‘있었던 일’에는 ‘나’라는 말로 시작하고 ‘상황’을 정리해서 씁니다. (2) ‘내 기분’에는 듣는 사람(동생)의 기분을 생각하며 솔직한 자신의 기분을 씁니다.

채점 기준 (1)에는 ‘나’라는 말로 시작하며 ‘상황’을 정리해 쓰고, (2)에는 듣는 사람을 생각하며 그때의 솔직한 자신의 기분을 써서 문장을 완성하면 정답으로 합니다.

국어 활동

18~19쪽

- 1 ① 2 대롱대롱 3 ②
 4 예 꿀벌이 웅웅 소리를 내며 날고 있다.
 5 (1) ② (2) ① 6 ③
 7 다 8 (2) ○

- 1 ‘똥’은 모양이나 소리를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2 매달린 모습을 나타내는 말로는 ‘대롱대롱’이 어울립니다.

정답 친해지기 • ‘방긋’은 입을 예쁘게 약간 벌리며 소리 없이 가볍게 한 번 웃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 ‘어흥’은 호랑이가 우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 ‘휘휘’는 이리저리 휘두르거나 휘젓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 3 거울이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에 어울리는 흉내 내는 말은 ‘쨍그랑’이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린 것에 어울리는 흉내 내는 말은 ‘주렁주렁’입니다.

정답 친해지기 3번에 나온 흉내 내는 말의 구분
 • 모양을 흉내 내는 말 예) 주렁주렁, 펄쩍펄쩍
 • 소리를 흉내 내는 말 예) 따르릉, 쨍그랑, 드르릉, 우당탕, 뽀드득
 • 모양과 소리를 흉내 내는 말 예) 바삭바삭, 훌쩍훌쩍, 소곤소곤

- 4 ‘웅웅’은 ‘조금 큰 벌레나 돌이 매우 빠르고 세차게 날아가는 소리.’ 또는 ‘거센 바람이 전선이나 철사에 빠르고 세차게 부딪치는 소리.’를 흉내 내는 말입니다. 어울리는 상황을 떠올려 글을 써 봅니다.

채점 기준 흉내 내는 말 ‘웅웅’을 의미에 알맞게 사용하여, 완성된 문장으로 표현하면 정답으로 합니다.

- 5 그림 ㉠에는 웃고 있는 모습이, 그림 ㉡에는 선물을 발견하고 신나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6 그림 ㉢에는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려는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7 친구의 성을 망가뜨린 그림 ㉣는 ‘미안해요’가 어울립니다. 그림 ㉤는 ‘신났어요’, 그림 ㉥는 ‘뿌듯했어요’가 어울립니다.
 8 그림 ㉦의 아이는 비 때문에 옷이 젖어서 속상할 것입니다.

실천

배운 내용 마무리하기

20쪽

- 1 ① 2 예 살금살금 3 ③, ④
 4 ②
 5 예 나는 율이가 생일 선물을 줘서 행복했어.
 6 ②
 7 예 곰이 모자를 벗습니다. / 곰이 그림책을 봅니다.

- 1 새싹이 자라는 모습에는 ‘쑥쑥’이 어울립니다.

정답 친해지기 ② ‘덜컹’은 ‘바람에 창문이 덜컹 흔들립니다.’와 같이 씁니다.
 ③ ‘바스락’은 ‘낙엽을 밟았더니 바스락 소리가 납니다.’와 같이 씁니다.
 ④ ‘첨병첨병’은 ‘첨병첨병 물장구를 칩니다.’와 같이 씁니다.
 ⑤ ‘데굴데굴’은 ‘야구공이 데굴데굴 굴러갑니다.’와 같이 씁니다.

- 2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걷는 모습을 흉내 내는 말로는 ‘살금살금’이 어울립니다.

정답 친해지기 ‘살금살금’을 넣어 문장 만들기 예
 • 잠든 동생이 깨지 않도록 살금살금 걸어 나왔다.

- 3 자신의 기분을 말할 때에는 듣는 사람을 생각하며 ‘나’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었던 일과 그때 자신의 기분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4 친구가 준비물을 빌려주었을 때에는 고마운 기분이 들 것입니다.
 5 친구와 있었던 일을 한 가지 떠올리고 ‘나’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있었던 일과 그때 자신의 기분을 나타내는 말을 넣어 문장을 씁니다.

채점 기준 듣는 사람을 생각하며 ‘나’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었던 일과 자신의 기분을 문장으로 표현하면 정답으로 합니다.

- 6 문장에서 ‘마십니다’에 어울리는 말은 ‘우유를’입니다.
 7 곰이 무엇을 어찌하는지 나타내는 문장을 만들어 써 봅니다.

채점 기준 ‘곰이 모자를’과 ‘벗습니다/봅니다/삽니다’, ‘곰이 그림책을’과 ‘봅니다/삽니다’, ‘곰이 우유를’과 ‘봅니다/삽니다/마십니다’와 같이 낱말을 연결했을 때 자연스러운 문장을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단원 평가

21~23쪽

- 1 ① 2 예 동실동실, 살랑살랑
3 ①, ③ 4 삐악삐악 5 ④
6 예 거위는 뒤뚱뒤뚱, 거북은 엉금엉금 걷는다.
7 ③ 8 ① 9 ①
10 예 쾅쾅, 반짝반짝
11 (1) 예 떨어다 (2) 예 신났다
12 ① 13 찌지직 14 ③
15 예 신나요 16 ㉠ 17 ⑤
18 (손바닥만 한) 구름 19 ④
20 예 친구들에게 화를 내지 말고 예쁘게 말하면 좋겠어.

- 1 ‘췌췌’는 사람이나 물체가 바람을 일으킬 만큼 매우 빠르게 움직일 때 나는 소리나 모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 2 이 글에 쓰인 흥내 내는 말은 ‘동실동실’, ‘살랑살랑’, ‘야옹’, ㉠ ‘췌췌’입니다.
- 3 흥내 내는 말은 모양을 나타내는 말과 소리를 나타내는 말이 있습니다. ‘갈갈’은 웃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췌췌췌췌’는 시계가 돌아가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 4 병아리 소리를 흥내 내는 말로는 ‘삐악삐악’이 어울립니다.
- 5 ‘휘저으며’는 ‘마구 저으며.’라는 뜻으로, 흥내 내는 말이 아닙니다.
- 6 제시된 흥내 내는 말 두 가지를 넣어 자연스러운 문장을 써 봅시다.

채점 기준 제시된 흥내 내는 말 가운데서 두 가지를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문장을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① ‘멤멤’은 ‘매미가 멤멤 읊니다.’와 같이 씁니다.
② ‘반짝반짝’은 ‘별이 반짝반짝 빛납니다.’와 같이 씁니다.
④ ‘활활’은 ‘장작불이 활활 타오릅니다.’와 같이 씁니다.
⑤ ‘우르릉 쿵쿵’은 ‘천둥이 우르릉 쿵쿵 칩니다.’와 같이 씁니다.

- 8 흥내 내는 말을 사용하면 문장의 내용이 더 실감 나고 재미있게 느껴지지,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 9 ‘나’만 뽕뽕에 올라가서 친구들이 부러워한 것입니다.
- 10 흥내 내는 말로 글 ㉠에는 ‘쾅쾅’, 글 ㉡에는 ‘폴짝’, ‘반짝반짝’이 쓰였습니다.
- 11 글 ㉢에서 ‘나’는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서 떨렸고, 글 ㉣에서는 ‘나’만 뽕뽕에 올라가서 신났습니다.
- 12 ‘나’는 민호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 13 깜짝 놀란 기분을 ‘내 마음이 찌지직, 번개처럼 찌지직!’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 14 ‘조마조마하다’는 다가올 일이 걱정되어 마음이 불안하다는 의미입니다. ③의 그림 속 아이들은 회전목마를 타며 환하게 웃고 있으므로 ‘신나요’, ‘즐거워요’ 등을 쓰는 것이 어울립니다.
- 15 수영장에서 노는 상황이므로 ‘신나요’, ‘기뻐요’, ‘즐거워요’, ‘재미있어요’ 등이 어울립니다.
- 16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며 자신의 기분을 말할 때에는 ‘나’라는 말로 시작하며 정리한 생각을 말합니다.
- 17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며 자신의 기분을 말할 때에는 ‘나’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었던 일과 그때의 솔직한 ‘나’의 기분을 말합니다.
- 18 어느 날 화를 내며 말하는 버릇이 있는 도치 머리 위에 손바닥만 한 구름이 생겼습니다.
- 19 소리를 지르는 행동에 어울리는 흥내 내는 말은 ‘버럭 버럭’입니다.

정답 친해지기 ① ‘번쩍’은 ‘빛이 번쩍 났다.’와 같이 씁니다.
② ‘두근두근’은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다.’와 같이 씁니다.
③ ‘팔랑팔랑’은 ‘나뭇잎이 팔랑팔랑 떨어졌다.’와 같이 씁니다.
⑤ ‘소곤소곤’은 ‘친구와 소곤소곤 비밀 이야기를 나누었다.’와 같이 씁니다.

- 20 도치는 친구에게 화를 내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쳐 예쁘게 말하라고 해 주는 것이 어울립니다.

채점 기준 도치가 친구들에게 잘못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와 이를 어떻게 고쳐야 할지를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2. 낱말을 정확하게 읽어요

핵심 확인 문제

26쪽

- 1 겹받침 2 (3) ○ 3 닥 → 닭
4 제목 5 말, 행동

준비 배울 내용 살펴보기

27쪽

- 1 (씩은) 동아줄 2 ⑤ 3 ④
4 예 듣는 사람이 그 낱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야.

-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을 잡았습니다.
- ‘뿔’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음자로 이루어진 받침 ‘ㄹ’이 들어 있습니다.
- 두 개의 자음자로 이루어진 받침은 바르게 읽는 방법을 생각하며 받침에 주의하여 읽어야 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두 개의 자음자로 이루어진 받침은 자음자가 두 개여도 하나만 발음합니다. 뒤에 오는 글자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므로, 바르게 읽는 방법을 알고 주의하여 읽어야 합니다.

- 받침에 주의하며 글을 읽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해당 낱말의 뜻을 잘못 이해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채점 기준 듣는 사람이 그 낱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거나 하고 싶은 말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담아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소단원 1 기본 글자의 짜임 알기

28쪽

- 1 ③ 2 (1) ○ (2) ㅏ (3) ㅑ
3 (1) ② (2) ① (3) ③ 4 (1) ① (2) ②

- ‘줄’의 받침에는 자음자 ‘ㄹ’ 하나만 들어 있습니다.
- ‘없’에는 자음자 ‘ㅇ’, 모음자 ‘ㅓ’, 받침 ‘ㅁ’이 들어갑니다. 겹받침 ‘ㅁ’에 주의하여 씁니다.
- ㉠은 ‘ㅁ’, ㉡은 ‘ㅂ’, ㉢은 ‘ㅅ’ 받침이 들어가야 합니다.

- 같은 자음자가 겹쳐서 된 받침은 쌍받침이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음자로 이루어진 받침은 겹받침입니다.

정답 친해지기 쌍받침과 겹받침의 예

- 쌍받침: ㄱ, ㅈ
- 겹받침: ㄴ, ㄷ, ㅌ, ㅍ

소단원 1 기본 받침에 주의하며 문장 쓰기

29쪽

- 1 ㄹ 2 ① 3 ⑤
4 잃어버렸다 5 ①
6 굶는다 7 ② 8 짧다

- ‘밝다’에는 받침 ‘ㄹ’이 들어가야 합니다.
- ‘않다’, ‘넉다’, ‘뵈다’, ‘가엸다’로 써야 합니다.
- ‘끓다’와 ‘뚫다’에는 모두 ‘ㅎ’이 받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 그림으로 볼 때 ‘잃어버렸다’가 어울립니다.
- 그림으로 보아 ‘넉다’가 어울립니다.
- 아이가 머리를 굶는 그림이므로 ‘굶는다’가 들어가야 알맞습니다.
- ‘닭’으로 고쳐 써야 합니다.
- ‘짧다’로 고쳐 써야 합니다.

소단원 1 통합 받침이 있는 낱말에 주의하며 글 읽기

30~31쪽

- 1 ① 2 ③ 3 먼지 (할아버지)
4 (1) ③ (2) ② (3) ① 5 ④
6 (아주) 넓고 위험한 곳 7 ⑤
8 예 세상은 아주 넓고 위험해서 참외가 되는 것이 쉽지는 않아. 하지만 참외씨는 잡아먹힐 뻔한 상황에서 용감하게 탈출을 했고, 달고 맛있는 참외가 되려는 꿈이 있으니까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 “하마터면 잡아먹힐 뻔했어.”라고 참외씨가 한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 “아이코! 세상은 무시무시한 곳이구나.”라고 한 참외씨의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국어 활동

35쪽

- 1 ④ 2 ㄹ 3 (1) ○
 4 ①, ⑤
 5 예 북도에서 걸어 다니자. / 북도에서 뛰지 말자.

- 1 ‘없다’, ‘가없다’라고 써야 하므로 공통으로 들어갈 받침은 ‘ㅁ’입니다.
- 2 ‘밟다’, ‘짹다’라고 써야 하므로 공통으로 들어갈 받침은 ‘ㅁ’입니다.
- 3 ‘땅을 밟다’로 써야 합니다.
- 4 북도에서 뛰면 친구와 부딪쳐서 다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 5 글의 제목을 살펴보고, 글쓴이가 글을 쓴 까닭을 생각해 봅니다.

채점 기준 제목인 ‘북도에서 걸어 다니자.’나, 글쓴이가 글을 쓴 까닭인 ‘북도에서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 다녀야 한다.’ 등의 내용을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실천

배운 내용 마무리하기

36쪽

- 1 ⑤ 2 넓고 3 옳다
 4 민혁(이) 5 ③
 6 (1) [까마귀] (2) [다람쥐]
 7 ① 8 (1) ○

- 1 ‘읽었다’, ‘흙’, ‘값’, ‘묵었다’로 써야 합니다.
- 2 겹받침 ‘ㅁ’에 주의하여 씁니다.
- 3 겹받침 ‘ㅈ’에 주의하여 씁니다.
- 4 이 글은 민혁이가 준호에게 쓴 편지입니다.
- 5 넘어졌을 때 도와준 준호에게 고맙다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 6 ‘까마귀’는 [까마귀]로, ‘다람쥐’는 [다람쥐]로 읽습니다. 모음 ‘ㄴ’을 ‘ㄷ’로 발음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7 가위는 [가위], 바위는 [바위], 가위바위보는 [가위바위보], 주사위는 [주사위]로 읽습니다.
- 8 [기여운]으로 발음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단원 평가

37~39쪽

- 1 ②, ③ 2 ① 3 붙
 4 ㄹ 5 (1) ㅁ (2) — (3) ㄹ
 6 ④ 7 ② 8 (1) ① (2) ②
 9 달다 / 닳았다 10 업다 → 없다
 11 예 (달고 맛있는) 참외가 되는 것
 12 (3) × 13 ㉠ 14 (1) ○
 15 (서연이의) 동생 16 ⑤
 17 ⑤ 18 ⑤ 19 할머니
 20 예 이야기에 어떤 인물이 나오는지 살펴본다. / 인물이 한 말이나 행동을 살펴본다.

- 1 ‘운’과 ‘즐’은 받침에 자음자가 하나인 글자이고, ‘어’는 받침이 없는 글자입니다.

정답 친해지기 자음자가 두 개인 받침의 종류

- 쌍받침: 같은 자음자가 겹쳐서 된 받침.
- 겹받침: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음자로 이루어진 받침.

- 2 ‘닭’에 겹받침이 들어 있습니다. ‘닭’에는 쌍받침이 들어 있습니다.
- 3 ‘붙’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음자로 이루어진 겹받침 ‘ㄴ’이 들어 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이 글에서 같은 자음자가 겹쳐서 된 받침인 쌍받침이 쓰인 글자는 ‘엇’과 ‘젖’입니다.

- 4 ‘넓다’, ‘짹다’, ‘밟다’는 모두 받침이 ‘ㅁ’인 글자입니다.
- 5 글자의 짜임을 생각하고 자음자와 모음자, 겹받침에 주의하여 써 봅니다.
- 6 낱말의 받침에 자음자가 두 개 있어도 한 개만 발음합니다. 따라서 [나비가 가엿따]로 발음해야 합니다.
- 7 ‘책을 읽다.’로 써야 합니다.
- 8 그림을 보면 ‘아이가 머리를 긁는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가 어울립니다.
- 9 연필심의 길이가 짧아진 그림이므로 ‘닳다’ 또는 ‘닳았’이라고 써야 합니다.
- 10 ‘업다’를 ‘없다’로 고쳐야 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업다’는 사람이나 동물을 등에 대고 손으로 붙잡거나 무엇으로 매어 붙어 있게 하다는 뜻입니다.

- 11 참외씨는 흙 속에 들어가서 달고 맛있는 참외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하였습니다.
- 12 낱말의 받침에 자음자가 두 개 있어도 한 개만 발음합니다. 따라서 [널꼬]로 발음해야 합니다.
- 13 ㉠의 '책이 얇다.'는 '얇다'로 써야 합니다.
- 14 '값'은 받침에 겹받침 'ㅅ'을 써야 합니다.
- 15 서연이는 물건을 쓰고 나서 제자리에 두지만 동생은 아무 데나 둔다고 하였습니다.
- 16 물건을 쓰고 나서 제자리에 두면 다음에 쓰려고 할 때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 17 제목을 살펴보거나 글쓴이가 글을 쓴 까닭을 찾아보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제목은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두자」이고, 글을 쓴 까닭은 풀이나 가위 같은 물건을 쓰고 나서 아무 데나 두는 동생이 물건을 쓰고 나서 제자리에 두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답 친해지기 글에서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을 찾는 방법

- 글의 제목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 글쓴이가 글을 쓴 까닭이 무엇인지 찾아봅니다.
- 글쓴이가 누구인지 알고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을 찾아봅니다.

- 18 에마는 바람이 췌췌 불어서 연 날리기 좋은 날이 멋진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 19 할머니가 생각하는 멋진 날입니다.

정답 친해지기 등장인물이 생각하는 멋진 날

- 에마 누나: 바람이 췌췌 불어서 연 날리기 좋은 날
- 안전 요원: 모두들 안전하게 귀가하는 날
- 할머니: 다니엘이 할머니를 꼭 안아 주는 날

- 20 이야기에 어떤 인물이 나오는지 찾아보고, 인물이 한 말이나 행동을 살펴봅니다.

채점 기준 인물의 생각을 알아보는 방법 가운데에서 한 가지를 적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인물의 생각을 알아보는 방법

- 이야기에 어떤 인물이 나오는지 찾아봅니다.
- 인물이 한 말이나 행동을 살펴봅니다.

3. 그림일기를 써요

핵심 확인 문제

42쪽

- 1 ○ 2 듣는 사람
3 크기, 토박토박
4 (1) ○ 5 경험, 자세히

준비

배울 내용 살펴보기

43쪽

- 1 (2) ○ 2 ④, ⑤ 3 ②, ④
4 예 그날 경험한 일을 일기에 쓴다.

- 1 그림 ④에서 여자아이가 바른 자세로 발표를 하여 발표를 듣고 있는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의 말을 분명히 알아듣고 있습니다.
- 2 그림 ②에서 여자아이는 발표를 하면서 말끝을 흐리고 있습니다. 또 그림 ②에서 남자아이의 생각을 통해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3 그림 ④의 여자아이처럼 말끝을 흐리지 않고 끝까지 분명하게 말하면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에게 뜻을 잘 전할 수 있고, 듣는 사람은 뜻을 알아듣기 쉽습니다.
- 4 이외에도 있었던 일을 개인 누리망에 쓰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이 경험한 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일기를 쓰거나 개인 누리망에 글을 쓰는 등 자신이 경험한 일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떠올려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소단원 1

기본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자세 알아보기

44~45쪽

- 1 탐험가 2 ① 3 (1) ① (2) ②
4 ① 5 ①, ②, ③
6 (1) ㉠ (2) ㉡ 7 (1) ㉠ (2) ㉠
8 예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듣는다. / 궁금한 점을 생각하며 듣는다.

- 1 남자아이는 “제 꿈은 탐험가입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 2 그림 ③에서 남자아이는 책을 찾아보며 탐험가가 하는 일을 알아보았습니다.
- 3 남자아이는 발표할 때에 바른 자세로 서서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또박또박 이야기하였습니다.
- 4 발표할 때에는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말해야 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바른 자세로 발표하는 방법

-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 허리를 펴고 바르게 서서 말합니다.
-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합니다.

- 5 듣는 자세가 바른 친구는 궁금한 점을 생각하며 듣고 있는 친구 ①, 바른 자세로 앉아서 듣고 있는 친구 ②,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듣고 있는 친구 ③입니다.
- 6 발표를 듣는 바른 자세를 생각하며 각 친구들이 어떻게 발표를 듣고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 7 (1)은 다른 친구와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모습이고, (2)는 발표에 귀 기울이지 않고 딴짓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 8 다른 사람의 발표를 들을 때에는 바른 자세로 앉아서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궁금한 점을 생각하며 듣습니다.

채점 기준 다른 사람의 발표를 들을 때의 바른 자세를 알맞게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다른 사람이 발표할 때에 바른 자세로 듣는 방법

-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듣습니다.
- 바른 자세로 앉아 듣습니다.
- 궁금한 점을 생각하며 듣습니다.
- 들은 내용을 이해했다면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 딴 생각을 하며 다른 곳을 보거나 딴짓하지 말고 듣습니다.
- 시끄럽게 떠들면서 다른 사람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소단원 1

(통합) 자신이 경험한 일이 잘 드러나게 발표하기

46쪽

- 1 예 일어났다. / 기지개를 켜다. 2 ⑤
- 3 해린

- 1 그림 ㉠에서 남자아이가 일곱 시에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 2 발표를 들을 사람의 수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 3 발표를 할 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단순히 목소리를 크게 말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소단원 2

(기본) 기억에 남는 일을 문장으로 말하기

47쪽

- 1 (1) ② (2) ①
- 2 예 체육 대회 때 이어달리기를 했다.
- 3 예 친구들과 서로 응원하면서 힘을 모아 이어달리기를 하여 우리 반이 이겼기 때문이다.
- 4 (1) ×

- 1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할 때 술래에게 숨은 곳을 들켰던 일은 ㉠ 놀랐던 일, 친구가 전학 간 일은 ㉡ 슬펐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우리 반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고 그중에서 재미있었거나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골라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우리 반에서 있었던 일 가운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떠올려 자유롭게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 3 문제 2번에서 고른 일이 특히 기억에 남는 까닭을 자세히 써 봅니다.

채점 기준 문제 2번에서 고른 일이 기억에 남는 이유를 자유롭게 문장으로 표현하면 정답으로 합니다.

- 4 있었던 일을 문장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기억에 남는 일과 그때의 느낌을 떠올려 보면 좋습니다.

소단원 2

(기본) 그림일기를 쓰는 방법 알기

48쪽

- 1 ⑤ 2 다 3 (3) ○
- 4 (1) 날씨 (2) 내용 (3) 생각이나 느낌

- 1 그림일기에는 날짜와 요일, 날씨, 그림, 글이 들어갑니다.
- 2 그날 경험한 일 가운데에서 기억에 남는 일을 쓰고, 경험한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쓰는 부분은 ㉠입니다.

그림일기에는 날짜와 요일, 날씨를 씁니다. 경험한 일 가운데에서 기억에 남는 일을 골라 그림과 글로 표현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게 씁니다.

4 그림일기는 자신이 경험한 일 가운데에서 기억에 남는 일을 골라 자세히 쓰고, 날짜와 요일과 함께 날씨도 써야 합니다.

5 그림에 알맞은 ‘무엇을’에 해당하는 말은 ‘책’입니다.

정답 친해지기 ‘무엇을’에 해당하는 말은 주로 동작을 나타내는 말 앞에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동작을 나타내는 말의 예

읽다, 먹다, 주다, 댕다, 그리다

6 이 문장에서 ‘무엇을’에 해당하는 말은 ‘거울’입니다.

단원 평가

53~55쪽

- | | | |
|------------------------------|-----------------------------------|----------|
| 1 ㄴ | 2 ④, ⑤ | |
| 3 뜻 | 4 ③ | 5 (1) ○ |
| 6 ① | 7 세(3) | |
| 8 예 | 궁금한 점을 생각하며 듣고 있구나. | |
| 9 ㄷ | 10 ⑤ | 11 ⑤ |
| 12 ⑤ | 13 예 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탄짓을 하지 말아야 해. | |
| 14 (1) ② (2) ① | 15 그림일기 | |
| 16 (1) 2000년 10월 24일 (2) 일요일 | | |
| (3) 해가 찡찡한 날 | 17 ④ | |
| 18 라 | 19 ⑤ | 20 (3) × |

1 ㄴ와 같이 바른 자세로 또박또박 말해야 듣는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2 그림 가에서 여자아이가 발표를 하면서 말끝을 흐리고 목소리도 너무 작아 남자아이가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이외에도 ㄴ와 같이 바른 자세로 발표하면 듣는 사람이 뜻을 알아듣기 쉽습니다.

4 장면 ③에서 남자아이는 “탐험가가 되어 북극을 탐험해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5 남자아이는 책을 보며 발표할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6 남자아이는 허리를 펴고 바른 자세로 서서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말하고 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바른 자세로 발표하는 방법

-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 허리를 펴고 바르게 서서 말합니다.
- 알맞은 크기의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합니다.

7 친구 ①, ②, ③이 바른 자세로 듣고 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 친구 ④는 짝꿍과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 발표를 들을 때는 시끄럽게 떠들며 다른 듣는 사람을 방해하지 말고 말하는 사람에게 귀 기울입니다.
- 친구 ⑤는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탄짓을 하고 있으며, 친구 ⑥은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탄 생각을 하며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발표를 들을 때에는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듣습니다.

8 그림에서 친구 ①은 발표하는 친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한 점을 생각하며 듣고 있습니다.

채점 기준 친구 ①은 발표하는 말을 들으며 궁금한 내용을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담아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9 친구 ④는 옆자리에 앉은 친구에게 말을 걸며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10 발표를 들으며 궁금한 점을 생각하며 듣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다른 사람이 발표할 때에 바른 자세로 듣는 방법

-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듣습니다.
- 바른 자세로 앉아 듣습니다.
- 궁금한 점을 생각하며 듣습니다.
- 들은 내용을 이해했다면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 탄 생각을 하며 다른 곳을 보거나 탄짓하지 말고 듣습니다.
- 시끄럽게 떠들면서 다른 사람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11 발표할 내용을 정할 때 발표 장소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12 친구 ㉠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궁금한 점이 생기면 말씀이 끝난 후에 질문을 합니다.

13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탄짓을 하지 말고 바른 자세로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채점 기준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탄짓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을 알맞게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 14 있었던 일 가운데에서 기억에 남는 일을 문장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재미있거나 기억에 남는 일을 골라 언제,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지 생각해 봅니다.

정답 친해지기 있었던 일 가운데에서 기억에 남는 일을 문장으로 생각하는 방법

- 있었던 일을 시간의 차례대로 정리해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 있었던 일 가운데에서 재미있거나 기억에 남는 일을 생각해 봅니다.
-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떠올려 봅니다.

- 15 제시된 설명은 그림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 16 날짜는 '20〇〇년 10월 24일', 요일은 '일요일', 날씨는 '해가 짙은 날'입니다.

정답 친해지기 그림일기에 들어갈 내용

- 날짜와 요일
- 날씨
- 경험한 일을 표현한 그림
- 기억에 남는 일과 생각이나 느낌을 쓴 글

- 17 그림일기에서 그림은 경험한 일이 잘 나타나도록 그립니다.

- 18 이 그림일기에서 생각이나 느낌이 나타난 문장은 ㉠ '사과를 직접 따 보니 정말 재미있었다.'입니다.

정답 친해지기 ㉠ '과수원을 하시는 할머니 댁에 놀러 갔다.'와 ㉡ '나와 동생은 빨갛게 익은 사과를 따다.'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있었던 일을 표현한 문장입니다.

- 19 경험한 일 가운데에서 중요한 장면을 정해 그림으로 그려야 합니다.

- 20 그림일기를 점검할 때에는 날짜, 요일, 날씨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경험한 일을 글과 그림에 잘 나타냈는지, 경험한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썼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4. 감동을 나누어요

핵심 확인 문제

58쪽

- 1 생각, 말, 행동 2 ○
3 (1) ○ 4 (1) × 5 ○

준비

배울 내용 살펴보기

59쪽

- 1 만화 영화 2 예 「뽀롱뽀롱 뽀로로」
3 예 뽀로로랑 친구들이 재미있게 놀던 장면
4 (3) ○

- 1 모두 자신이 본 만화 영화를 떠올린 것입니다.

- 2 ㉠~㉣ 외에도 자신이 본 만화 영화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써 봅니다.

- 3 자신이 본 만화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는지 떠올려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자신이 본 만화 영화 가운데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을 자유롭게 적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4 영진이는 동생과 함께 본 만화 영화 제목만 말하였고, 세정이는 만화 영화 캐릭터가 그려진 학용품을 산 경험만 말하였습니다.

소단원 1

기본 누가 무엇을 했는지
생각하며 이야기 듣기

60쪽

- 1 ① 2 선생님
3 ㉠ → ㉡ → ㉢ → ㉣
4 예 브로콜리를 좋아하지 않지만 용기 내어 먹어 본 적이 있다.

- 1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찾아봅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주원이가 싫어하는 미역으로 만든 반찬이 나왔습니다.

- 2 미역무침을 먹는 주원이를 보고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입니다.

- 3 주원이는 급식 반찬으로 나온 미역무침을 먹기 싫어했지만 서윤이가 한번 먹어 보라고 하며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용기 내어 미역무침을 먹어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생님께서 주원이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 4 주원이는 용기를 내어 싫어하는 미역으로 만든 미역무침을 한번 먹어 보았는데 생각보다 맛이 좋아서 다 먹었습니다. 이처럼 주원이와 비슷한 경험을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주원이와 비슷하게 용기 내어 싫어하는 음식을 먹었던 경험이나, 싫어하는 일을 해 보았던 경험을 완전한 문장으로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소단원 1

(통합) 이야기를 읽고 일이 일어난 차례 정리하기

61~62쪽

- 1 ② 2 ① 3 어느 날 아침
4 (1) 작은따옴표 (2) 마음속으로 한 말
5 ⑤ 6 예 (소금이 배 안에 쌓여 배가 기우뚱거리자) 너무 놀라 땀을 멈추는 방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7 ①, ④ 8 (1) 2 (2) 1 (3) 3

- 1 사람들은 시장에 모여 임금님이 가진 신기한 땀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2 ‘신기한’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의 뜻입니다. ②는 ‘귀한’이라는 낱말의 뜻입니다.
3 ‘어느 날 아침’이 시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정답 친해지기 ‘어느 날 아침’처럼 일이 일어난 때를 알려주는 말을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생각하면 일이 일어난 차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4 ㉠에 쓰인 ‘은’은 작은따옴표로, 인물이 마음속으로 한 말을 나타낼 때 씁니다.

정답 친해지기 인물이 소리 내어 한 말을 나타낼 때 쓰는 큰따옴표는 “ ”입니다.

- 5 도둑은 바다 건너 멀리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6 도둑은 소금이 쏟아져 배 안에 쌓여 배가 기우뚱거리자 너무 놀라 땀을 멈추는 방법을 잊어버렸고, 땀돌과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채점 기준 ‘배 안에 소금이 쌓여 배가 기우뚱거리자, 도둑은 너무 놀라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등 글 속에서 도둑이 땀돌과 함께 바닷속에 가라앉게 된 이유를 찾아서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 7 일이 일어난 때를 알려 주는 말을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도둑이 언제 궁궐로 숨어들었고, 언제 땀돌을 훔쳤는지 생각하며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찾습니다.
8 누가 무엇을 했는지 생각하며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정리해 봅니다.

소단원 2

(기본) 만화 영화를 보고, 있었던 일 정리하기

63~64쪽

- 1 꽃 2 ⑤ 3 ⑤
4 예 카르망 콩드 백작이 뛰어나가는 장면이 재미있었어.
5 ④ 6 (1) ② (2) ①
7 예 꽃을 선물받은 카르망 콩드 백작에게 이상한 반응이 생겼다. 8 시온

- 1 「빨간 모자가 된 아이쿠」에 나오는 인물은 아이쿠, 비비, 카르망 콩드 백작이다.
2 아이쿠는 꽃밭에서 꽃을 따 할머니께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3 꽃을 받은 카르망 콩드 백작은 몸이 가려워지고, 콧물을 흘리며 기침과 재채기를 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만화를 보고 있었던 일을 정리할 때에는 인물의 말과 행동, 말투, 표정, 몸짓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 4 만화 영화에서 인물이 한 말과 행동을 떠올려 보고 재미있었던 장면을 써 봅니다.

채점 기준 만화 영화에서 인물이 한 말과 행동을 떠올려 보고 재미있었던 장면을 자유롭게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 5 아이쿠는 할머니 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6 카르망 콩드 백작이 할머니로 변장하고 할머니 댁에서 아이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 아이쿠와 카르망 콩드 백작이 만난 후, 아이쿠에게 꽃을 선물받은 카르망 콩드 백작에게 이상한 반응이 생겼습니다.

채점 기준 카르망 콩드 백작이 아이쿠가 따 온 꽃을 선물받고 몸이 가려워지고, 콧물을 흘리며 기침과 재채기를 하는 등 몸에 이상한 반응이 생겼다는 내용을 담아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 8 만화 영화를 보고 있었던 일을 차례대로 정리할 때에는 인물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인물이 어떤 말투로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몸짓을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단원 2

통합 만화 영화를 보고 감동적인 장면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65~66쪽

- 1 거북알 2 ②
3 미끄럼틀 타기, 공놀이
4 (1) 1 (2) 4 (3) 3 (4) 2 5 ①, ⑤
6 예 껌병이들이 아기 거북을 동생처럼 대해 주던 장면이 재미있었다.
7 예 나라면 아기 거북이 엄마를 보고 싶어할 것 같아서 엄마 거북을 바로 찾아주었을 거야.

- 1 풍지는 바닷가에서 놀다가 모래 구덩이에서 거북알을 발견하였습니다.
2 먼저 깨어난 거북들이 바다로 들어가고 난 후 아기 거북이 혼자 뒤늦게 알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까투리 가족 집으로 따라 간 것입니다.
3 까투리 가족의 집으로 간 아기 거북과 마지, 두지, 세찌, 풍지는 미끄럼틀도 타고 공놀이도 하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4 만화 영화에서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정리해 봅니다.

정답 친해지기 만화 영화를 보고 있었던 일을 정리할 때에는 인물의 말과 행동, 말투, 표정, 몸짓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 5 아기 거북은 껌병이들과 재미있게 놀았으므로 신나고 재미있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6 만화 영화를 보면서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장면과 그 까닭을 생각해 써 봅니다.

채점 기준 만화 영화를 보면서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장면과 그 까닭을 자유롭게 적으면 정답으로 합니다.

- 7 만화 영화의 한 장면을 생각하고 그때 등장인물은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떠올려 봅니다. 또 자신이라면 등장인물과 비슷한 행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행동을 할 것인지 떠올려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자신이 만화 영화 속 등장인물이라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떠올리고 자세히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국어 활동

67쪽

1 (1) ① (2) ②

2 (1) ㉠ (2) ㉡ (3) ㉢

3

- 1 각 인물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살펴봅니다.
2 일이 일어난 차례를 정리하며, 알맞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찾아봅니다.
3 작은따옴표는 인물이 마음속으로 한 말을 나타낼 때 씁니다.

실천

배운 내용 마무리하기

68쪽

1 (1) ○ (2) ○ (3) ×

2 (1) 3 (2) 2 (3) 1

3 ②, ⑤

4 (1) 예 「뽀롱뽀롱 뽀로로」

(2) 예 뽀로로가 친구들과 술래잡기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술래잡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5 예 먹는다 / 먹습니다

6 예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렸다.

- 1 이야기에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알아볼 때에는 인물의 생각이나 말, 행동을 살펴봅니다.
2 그림을 보고 일이 일어난 차례를 생각해 봅니다.
3 만화 영화를 보고 생각이나 느낌을 말할 때에는 만화 영화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거나 떠오르는 장면에 대한 느낌을 말해야 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만화 영화를 보고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는 방법

- 만화 영화를 보고 누가 무엇을 했는지 생각하고,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정리해 봅니다.
- 만화 영화에서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장면을 찾아 이야기해 봅니다.
- 만화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고, 자신이라면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해 봅니다.

- 4 자신이 본 책이나 만화 영화를 떠올려 보고 그중 기억에 남는 것을 한 가지 골라 생각이나 느낌을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자신이 본 책이나 만화 영화의 제목을 적고, 그중 기억에 남는 장면을 떠올려 생각이나 느낌을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 5 그림에서 가족이 밥을 먹고 있으므로 ‘먹는다’ 또는 ‘먹습니다’를 넣는 것이 어울립니다.

- 6 ‘씻다’, ‘먹다’, ‘읽다’ 등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여 오늘 있었던 일을 문장으로 표현해 봅니다.

채점 기준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읽다’, ‘씻다’, ‘먹다’, ‘그리다’ 등의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면 정답으로 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동작을 나타내는 말은 주로 문장의 끝에 옵니다.

동작을 나타내는 말의 예

책을 읽다, 얼굴을 씻다, 밥을 먹다, 이를 닦다, 공을 차다, 그림을 그리다.

단원 평가

69~71쪽

- 1 ‘나’, 서윤이 2 (1) ② (2) ①
3 ⑤ 4 ③ 5 (2) ○
6 예 브로콜리를 먹지 않는 동생에게 브로콜리가 아삭아삭 정말 맛있다며 먹어 보라고 말해 주었다.
7 (2) × 8 뱃돌 9 (1) ① (2) ②
10 ① 11 ④, ⑤ 12 예 깊은 밤, 도둑이 임금님의 뱃돌을 훔쳐 도망갔다.
13 ③ 14 (1) ○ 15 ②
16 ⑤ 17 (1) 1 (2) 3 (3) 2
18 ② 19 ④
20 예 아기 거북이 다시 가족을 만나는 장면이 감동적이다.

- 1 ‘나’와 서윤이가 등장합니다.
2 서윤이는 “너도 한번 먹어 봐. 새콤달콤 맛이 얼마나 좋은데.”라고 말하고, 미역무침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인물의 생각이나 말, 행동을 정리할 때에는 인물이 어떤 생각이나 말,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 3 문장 ㉠은 ‘나’가 마음속으로 한 말이므로 작은따옴표를 써야 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

- 큰따옴표(“ ”): 인물이 소리 내어 한 말을 나타낼 때 씁니다.
- 작은따옴표(‘ ’): 인물이 마음속으로 한 말을 나타낼 때 씁니다.

- 4 ‘나’는 미역을 싫어하지만 눈을 질끈 감고 미역무침을 먹어 보았습니다.
5 (2) → (1)의 차례로 일이 일어났습니다.
6 서윤이는 미역무침을 먹기 싫어하는 ‘나’에게 미역무침이 맛있다고 한번 먹어 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해 보지 않은 일을 해 보도록 권해 본 경험을 떠올려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서윤이와 같이 친구나 가족에게 그들이 해 보지 않은 일을 용기 내어 한번 해 보도록 권한 경험을 자유롭게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 7 인물의 생각이나 말, 행동을 살펴봅니다.
8 도둑은 사람들이 시장에 모여 임금님이 가진 신기한 뱃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9 ‘신기한’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서둘러’는 ‘일을 급하게 처리하려고.’의 뜻입니다.
10 신기한 뱃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도둑은 ‘그 뱃돌이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며 뱃돌을 훔치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11 이 글에 쓰인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 ‘어느 날 아침’, ‘저녁’, ‘깊은 밤’입니다.
12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생각하며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정리합니다.

채점 기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여 제시된 문장 다음에 일어난 일을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생각하면 일이 일어난 차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쓰인 시간을 나타내는 말: 어느날 아침, 저녁, 깊은 밤

- 13 양치기 소년은 처음에는 심심하여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쳤고, 나중에는 진짜로 늑대가 나타나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쳤습니다.

- 14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찾으며 일이 일어난 차례를 정리해 봅니다.

정답 친해지기 이 이야기에 쓰인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 '이튿날'과 '며칠 뒤'입니다.

- 15 아이쿠는 할머니께 선물로 드리려고 꽃밭에서 꽃을 따왔습니다.

- 16 할머니로 변장한 카르망 콩드 백작이 아이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17 만화 영화 속 인물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고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정리해 봅니다.

정답 친해지기 이 만화 영화에서 있었던 일을 차례대로 정리하기

- ① 아이쿠가 할머니 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 ② 아이쿠와 비비가 할머니께 꽃을 따 드리기로 했습니다.
- ③ 아이쿠가 할머니로 변장한 카르망 콩드 백작을 만났습니다.
- ④ 꽃을 선물받은 카르망 콩드 백작에게 이상한 반응이 생겼습니다.

- 18 거북알을 발견한 콩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었습니다.

- 19 아기 거북은 혼자 뒤늦게 알에서 깨어났고, 까투리 가족을 따라 까투리 가족의 집으로 갔습니다.

- 20 만화 영화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고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장면을 찾아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이 만화 영화의 내용을 떠올리고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장면과 그 까닭을 자유롭게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같은 만화 영화를 보아도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장면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과 그 까닭을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5. 생각을 키워요

핵심 확인 문제

74쪽

- | | | |
|--------|------|----------|
| 1 ○ | 2 다른 | 3 소리, 모양 |
| 4 공, 종 | 5 × | 6 속상한 |

준비

배울 내용 살펴보기

75쪽

- 1 (1) 예 해 (2) 예 람, 란
- 2 (1) 예 첫 자음자인 'ㅈ'과 'ㅎ'이 다르다.
(2) 예 받침인 'ㄹ'과 'ㄴ'이 다르다.
- 3 ⑤
- 4 예 재, 주 / 바, 부 등
- 5 예 요술 향아리

- 1 첫 자음자, 모음자, 받침 가운데에서 하나의 글자만 다른 글자를 찾아 써 봅니다.

정답 친해지기 모양이 비슷한 글자란 하나의 자음자 또는 모음자만 다른 글자를 의미합니다.

- 2 문제 1번에서 찾은 글자를 비교해 보고 자음자와 모음자 가운데에서 서로 무엇이 다른지 찾아 씁니다.
- 3 '도'와 '다'는 첫 자음자 'ㄷ'은 같고 모음자가 각각 'ㅛ'와 'ㅜ'로 다릅니다.
- 4 글자의 짜임에서 모음자 하나만 다른 글자를 찾아 써 봅니다.
- 5 책 제목을 살펴보면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을 고를 때 제목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단원 1

기본 한글을 소중히 여기기

76~77쪽

- | | | |
|---------|-----|---------|
| 1 ⑤ | 2 ㅈ | 3 ⑤ |
| 4 (2) ○ | 5 하 | 6 세종 대왕 |
| 7 (2) ○ | 8 ② | |
- 9 예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어 편리해졌다. 등



- 1 ‘ㄷ’에 한 획을 더 그어 ‘ㅌ’을 만들었습니다.
- 2 ‘ㅈ’에서 한 획을 더 그으면 ‘ㅊ’이 됩니다.
- 3 ‘ㅏ’, ‘ㅑ’, ‘ㅓ’, ‘ㅕ’는 서로 방향을 달리하여 만들 수 있는 모음자입니다.
- 4 ‘ㄱ’에서 한 획을 더 그으면 ‘ㅋ’이 되고 이때 소리는 더 세집니다.

정답 친해지기 자음자에 획을 그어 다른 글자를 만들면 소리가 더 세집니다. ‘ㅋ’이 ‘ㄱ’보다, ‘ㅌ’이 ‘ㄷ’보다, ‘ㅊ’이 ‘ㅈ’보다 소리가 셉니다.

- 5 ‘호’에서 ‘ㅛ’의 방향을 달리하면 ‘하’, ‘후’, ‘허’ 등의 글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휴’와 ‘혜’는 모음자 ‘ㅛ’의 방향을 달리한 후 획을 더 그었습니다.
- 6 한글은 조선 시대에 세종 대왕이 만든 글자입니다.
- 7 양반이 아니라, 글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백성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글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세종 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입니다.
- 8 한글은 소리 나는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입니다.
- 9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백성이 한자를 몰라서 글을 읽지 못하여 불편했습니다.

재점 기준 한글을 만든 후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고, 삶이 편리해졌다는 내용을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소단원 1

기본 글자에 관심 가지기

78쪽

- | | |
|---------------------|---------|
| 1 (1) ㄷ (2) ㅌ (3) ㄹ | 2 (1) ○ |
| 3 (1) ① (2) ② | 4 ② |
| 5 예 북, 예 봄, 예 봉 | |

- 1 첫 자음자에 ‘ㄷ’, 모음자에 ‘ㅏ’, 받침에 ‘ㄹ’이 쓰였습니다.
- 2 ‘달’과 ‘밭’은 모음자와 받침은 같고 첫 자음자만 달리하여 만든 낱말입니다.

정답 친해지기 한글은 낱말을 이루고 있는 글자가 하나만 달라져도 글자의 모양과 소리, 뜻이 달라집니다.

- 3 ‘볼’의 첫 자음자 ‘ㅂ’을 ‘ㅅ’으로 바꾸면 ‘솔’이 됩니다. ‘감’의 첫 자음자 ‘ㄱ’을 ‘ㅂ’으로 바꾸면 ‘밤’이 됩니다.

- 4 ‘감’의 받침 ‘ㅁ’을 ‘ㅇ’으로 바꾸었을 때 ‘강’이 됩니다.
- 5 ‘볼’에서 받침 ‘ㄹ’만 바꾸어 의미 있는 낱말을 만들어 써 봅니다.

소단원 2

통합 책에 흥미 가지기

79~80쪽

- | | |
|---|----------|
| 1 (1) ② (2) ① | 2 (2) ○ |
| 3 예 전자 기기 / 노트북 / 태블릿 | |
| 4 ① | 5 ③ 6 빈이 |
| 7 예 저는 책을 비행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책은 나를 어디로든지 데려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 1 몽키는 책을, 동키는 노트북을 들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 2 동키가 몽키에게 “그건 뭐야?”라고 물어본 까닭은 동키는 몽키가 가지고 있는 책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 3 동키는 자신이 들고 있는 노트북 같은 전자 기기와 책을 비교하며 책으로 스크롤을 어떻게 하는지, 게임을 하거나 메일을 보낼 수 있는지 등을 몽키에게 묻고 있습니다.
- 4 동키는 책과 전자 기기를 비교하며 책도 전자 기기 같은 기능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책으로 글을 쓸 수 있는지 물어보지는 않았습다.
- 5 동키는 책에 흥미를 느껴 더 읽고 싶어서 책을 돌려달라는 몽키의 말에 “아니.”라고 답하였습니다.
- 6 책에 관해 잘 모르는 동키가 몽키에게 엉뚱한 질문을 계속하는 장면이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몽키가 동키에게 화를 내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재미있는 부분을 고를 때에는 기억에 남는 장면, 공감이 가는 장면, 자신의 경험과 비슷한 장면, 감동적인 장면 등을 떠올려 봅니다.

- 7 자신이 생각하는 책은 어떤 것인지, 책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낱말을 떠올려 표현해 봅니다.

재점 기준 책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낱말과 그 낱말을 고른 까닭을 완전한 문장으로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소단원 2

기본 글을 읽고 생각이나
느낌 나누기

81~82쪽

- 1 (1) ② (2) ① 2 ⑤ 3 ②
4 예 땀을 낼 때 넘지 못할까 봐 겁이 났다.
5 예 훌라후프를 잘 돌리고 싶어서
6 (1) ○ 7 ①, ⑤ 8 ②
9 예 칭찬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지만 다음에는 친구들처럼 훌라후프를 잘 돌리면 좋겠다는 마음이 안타까웠어.

- 운동장에 나가자는 선생님의 말씀에 친구들은 “우아!” 하고 소리를 질렀지만 나만 혼자 “어휴.”라고 하였습니다.
- ‘나’는 운동장에 나가자는 선생님 말씀에 “어휴.”라고 하였습니다.
- “어휴.”라는 말과 ‘내가 하면 훌라후프가 금방 푹 떨어진다.’와 같은 부분에서 ‘나’는 훌라후프를 잘 돌리지 못해서 훌라후프로 운동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주인공과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서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주인공처럼 하기 싫은 일이나 하기 두려운 일을 해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을 담아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 ‘나’는 친구들처럼 훌라후프를 잘 돌리고 싶어서 훌라후프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허리를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 선생님은 훌라후프 돌리기를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하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 칭찬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지만 다음에는 친구들처럼 훌라후프를 잘 돌리면 좋겠다는 마음도 나타납니다.
- ‘나’는 선생님께 칭찬을 받은 후에 ‘다음에는 친구들처럼 훌라후프를 잘 돌리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 ‘나’의 생각이나 느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친구들이 잘하는 것을 나만 잘하지 못할 때 들 수 있는 속상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부러운 마음을 이해하거나 공감하고 응원하는 생각 등을 담아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국어 활동

83쪽

- 1 ③ 2 (1) ○ (2) ○ (3) ×
3 ①

- ㉠에는 ‘술’의 첫 자음자를 바꾼 낱말인 ‘불’이, ㉡에는 ‘술’의 모음자를 바꾼 낱말인 ‘실’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 (1) 1번에서 ㉠에 들어갈 낱말은 ‘불’입니다. ‘불’에서 받침을 바꾸어야 하므로 ‘복’은 알맞게 바꾼 낱말입니다. (2) 1번에서 ㉡에 들어갈 낱말은 ‘실’입니다. ‘실’에서 받침을 바꾸어야 하므로 ‘신’은 알맞게 바꾼 낱말입니다. (3) ‘손’에서 받침을 바꾸어야 하므로 알맞게 바꾼 낱말은 ‘술’, ‘술’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우주에서는 음식을 담아 둔 주머니와 수저가 떠다니지 않게 식판에 붙여 놓고 먹습니다.

실천

배운 내용 마무리하기

84쪽

- 1 (1) 바, 큰 (2) ○, 큰 2 산들
3 ㉠ 4 (1) 예 돈 (2) 예 산 (3) 예 숨
5 ④ 6 (1) ② (2) ① 7 ③

- ‘밤’과 ‘람’은 첫 자음자가, ‘동’과 ‘돌’은 받침이 다른 글자입니다.
- 안내판에서는 도토리야 밤은 겨울철 다람쥐 같은 야생 동물의 먹이이므로 줍지 말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한 말은 안내판의 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 한글은 글자를 만든 사람, 만든 까닭, 만들고 발표한 때, 만든 원리와 사용법이 알려진 문자입니다.
- ‘손’에 사용된 ‘ㅅ’, ‘ㅇ’, ‘ㄴ’을 각각 바꾸어 의미가 다른 낱말을 만들어 봅니다.
- ‘먹’은 ‘물’의 글자 가운데에서 모음자와 받침을 각각 ‘ㅓ’와 ‘ㄱ’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 차를 셀 때 쓰는 낱말은 ‘대’이고, 종이를 셀 때 쓰는 낱말은 ‘장’입니다.
- 수박을 셀 때 쓰는 낱말은 ‘통’입니다.

단원 평가

85~87쪽

- 1 ① 2 ④, ⑤
 3 예 한자를 모르는 백성이 억울한 일이 있어도 전할 방법이 없는 것을 세종 대왕이 안타깝게 여겼기 때문이다. / 백성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글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4 (2) × 5 훈민
 6 (1) 예 죽 (2) 예 각 (3) 예 궁
 7 (1) 예 심장, 사자, 시장 등
 (2) 예 가구, 아우, 마중 등
 8 (1) 예 돈 (2) 예 단 (3) 예 달 9 (3) ○
 10 예 책과 노트북을 비교하고 있어서 / 책에 대해 잘 몰라서
 11 ② 12 ② 13 ②
 14 (2) ○
 15 예 재치 있다고 생각한다. / 대단하다고 느꼈다.
 16 ② 17 (1) ㉠ (2) ㉠ (3) ㉠
 18 (1) ② (2) ① 19 (2) ○
 20 (3) ○

- 1 획을 더 그어 만든 글자의 세기가 세지는 것은 자음자입니다. ‘ㄱ’의 방향을 달리하면 ‘ㄴ’, ‘ㄷ’ 등의 다른 글자가 됩니다.
 2 ‘ㄱ’, ‘ㄴ’, ‘ㄷ’, ‘ㄹ’은 서로 방향을 달리하여 만들 수 있는 글자이며, ‘ㅈ’, ‘ㅊ’은 ‘ㄱ’에 획을 더 그어 만들 수 있는 글자입니다.
 3 한자를 모르는 백성이 억울한 일이 있어도 전할 방법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세종 대왕이 백성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채점 기준 글을 읽고 쓸 줄 몰라 불편을 겪는 백성들이 쉽게 배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내용을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 4 한글은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매일 쓰며 편안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세종 대왕이 만들었으므로 백성들이 배우기 어렵다는 말은 알맞지 않습니다.
 5 세종 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백성도 쉽게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국’은 글자 ‘ㄱ’, ‘ㅊ’, ‘ㅊ’이 사용된 낱말입니다. 각각 글자 하나씩을 바꾸어 뜻이 있는 다른 낱말을 만들어 봅니다.

- 7 보기의 자음자와 모음자를 넣어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 보고 낱말의 뜻이 달라짐을 확인해 봅니다.
 8 ‘손’에서 첫 자음자를 바꾸어 쓰고, 다음에는 바꾼 낱말의 모음자를, 그 다음에는 바꾼 낱말의 받침을 바꾸어 가며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 봅니다.
 9 ‘감’과 ‘강’은 첫 자음자와 모음자는 같고 받침만 다른 낱말입니다. 한글은 글자가 하나만 달라도 모양과 소리, 뜻이 다른 새로운 낱말이 됩니다.
 10 책에 대해 잘 모르는 동키는 몽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과 비교하여 책에 관해 묻고 있습니다.
 11 ㉠에는 종이를 세는 단위인 ‘장’이 들어가야 알맞습니다.
 12 동키는 책을 읽는 것에 재미를 느껴서 책을 돌려 달라고 하는 몽키의 말을 거절하였습니다.
 13 몽키가 동키에게 책을 선물한 장면은 없으므로 알맞지 않습니다.
 14 ‘나’는 훌라후프로 운동하는 시간이 부담스러워서 다른 친구들과 달리 한숨을 쉰 것입니다.
 15 ‘나’가 훌라후프를 잘 돌리기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써 봅니다.

채점 기준 훌라후프를 잘 돌리기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재치 있다’, ‘대단하다’, ‘멋지다’와 같은 자신의 느낌을 구체적으로 쓰거나, 비슷한 경험을 떠올려 그때의 마음을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 16 ‘잘’의 첫 자음자만 ‘ㅁ’으로 바꾸면 ‘말’이 됩니다.
 17 ‘나’는 운동장에 나가자는 선생님의 말씀에 운동장에 나갔습니다. 훌라후프를 잘 돌리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18 ‘나’는 운동장에서 훌라후프를 잘 돌리는 친구들을 보며 신기하고 부러운 마음을 느낍니다. 그러다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을 때는 뿌듯하고 기쁘면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을 느낍니다.
 19 글을 읽고 재미있는 점을 떠올릴 때에는 웃긴 장면만이 아니라 감동적인 점, 놀라운 점, 새롭게 알게 되어 신기한 점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현서는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20 많은 장난감을 혼자 옮겨주고 있는 친구의 행동을 볼 때는 친구들과 함께 가지고 놀아야 한다는 생각을 떠올려 표현할 수 있습니다.

6. 문장을 읽고 써요

핵심 확인 문제

90쪽

- 1 문제, 해결, 구체적 2 뜻
3 같지만, 다른 4 (2) ○ 5 ×

준비 배울 내용 살펴보기

91쪽

- 1 영화관 2 ④ 3 아리
4 예 영화관에서는 휴대 전화에서 소리나 진동이 울리지 않게 해야 해.

- 1 친구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영화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2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영화관에서 조용히 팝콘 등의 간식을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 3 친구와 영화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고 싶을 때에는 영화를 다 본 후에 따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 4 휴대 전화에서 소리나 진동이 울리면 영화를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 휴대 전화에서 소리가 나고 있는 그림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영화관을 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을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상황에 알맞게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해야 할 때에는 먼저 해당 상황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해결 방법을 생각한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소단원 1 기본 생각을 문장으로 나타내기

92쪽

- 1 (1) ○ 2 (1) ㉠ (2) ㉡ (3) ㉢
3 예 종이를 더 쓸 수 있는데
4 예 아직 더 쓸 수 있으니 종이를 뒤집어서 쓰면 좋겠어요.

- 1 물건을 새로 생각하여 만든 것은 '발명', 계속 꽃혀 있던 플러그를 찾아낸 것은 '발견'에 해당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발명'과 '발견' 구분하기

'발명'이 쓰인 문장 예

- 여러 기계들이 발명되면서 우리의 삶이 편리해졌다. 등

'발견'이 쓰인 문장 예

- 친구가 잃어버린 우산을 내가 우연히 발견했다.

- 2 영상의 내용을 떠올려 보고, 사람들이 발견한 것을 바르게 연결해 봅니다.
- 3 친구가 더 쓸 수 있는 종이를 쓰레기통에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 4 문제 상황과 해결 방법을 밝혀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써 봅니다.

채점 기준 문제 상황과 해결 방법을 종합해 종이를 뒤집어서 더 쓰면 좋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밝혀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소단원 1 통합 시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나타내기

93쪽

- 1 (1) ① (2) ②
2 (1) ○ 3 해인
4 예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어 손을 들고 내 생각을 발표하는 별이 되고 싶어요.

- 1 '별'은 '혼자', '반짝' 빛나고, '별자리'는 '여럿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정답 친해지기 이 시는 혼자 반짝 빛나는 별도, 여럿이 함께 반짝반짝 빛나는 별자리도 모두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에서 사용된 낱말들이 어떠한 의미인지 떠올려 보면 정답을 찾기 쉽습니다.

- 2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등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혼자 빛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3 다른 친구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도와준 해인이 여럿이 함께 반짝반짝 빛나는 친구입니다.
- 4 어떤 별이나 별자리가 되고 싶은지 자신의 생각을 완전한 문장으로 써 봅니다.

채점 기준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떠올려 구체적으로 쓰고, 이때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골랐을 때는 별, 여럿이 함께 하는 일을 골랐을 때는 별자리가 되고 싶다는 내용을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소단원 2

기본 낱말 바르게 쓰고 읽기

94쪽

- 1 (1) ② (2) ① (3) ③ 2 못
3 ②, ⑤ 4 ③

- 1 ‘낮’은 해가 떠서 질 때까지를, ‘낮’은 풀 따위를 베는 농기구를, ‘낮’은 얼굴을 뜻하는 말입니다.

정답 친해지기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낱말 예

- ‘낮’, ‘낮’, ‘낮’은 모두 [낫]으로 소리가 나지만 뜻이 서로 다르므로 주의해서 써야 합니다.
- 낮: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의 동안.
예 겨울철은 낮이 짧고 밤이 길다.
 - 낮: 곡식, 나무, 풀 따위를 베는 데 쓰는 농기구.
예 밭에서 농부가 낮으로 밭을 베고 있다.
 - 낮: 눈, 코, 입 따위가 있는 얼굴의 바닥.
예 주희는 부끄러워서 낮이 붉어졌다.

- 2 ‘ㅅ’ 받침을 쓴 ‘뫓’으로 씁니다.
3 글자를 소리 나는 대로 쓰면 그 뜻을 알기 어렵고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낱말을 바르게 구별할 수 없으므로 낱말을 알맞게 써야 합니다.
4 ‘말’, ‘맛’, ‘맏’, ‘맏’의 소리는 모두 같지만 뜻이 모두 다릅니다. 코로 향기를 느낄 때 쓰는 말은 ‘맡다’입니다.

- 정답 친해지기** ① 맏: ‘맏’은 여러 형제자매 가운데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을 더하는 낱말입니다. ‘맏이’, ‘맏며느리’처럼 씁니다.
② 맛: ‘맛’은 음식을 혀에 댈 때 느끼는 감각을 뜻하는 낱말입니다.
④ 맛: 마주 또는 서로 엇비슷하다라는 뜻을 더하는 낱말입니다. ‘맛들다(물건을 양쪽에서 마주 들다.)’처럼 씁니다.
⑤ 많: ‘많’은 ‘맏다’, ‘맏이’처럼 씁니다.

소단원 2

기본 문장을 자연스럽게 띄어 읽기

95쪽

- 1 소방관 2 (1) 장난 (2) 소화전 (3) 대피
3 예 첫째, √소방서에 장난 전화를 하면 √안 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소방관은 바로 출동해야 합니다.
4 (1) ○

- 1 소방관이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2 소방관이 말한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법 세 가지를 잘 살펴보고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찾아 씁니다.
3 띄어 읽는 방법은 다양하므로 글쓴이가 말하려는 내용을 생각하며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어 봅니다.
4 (2)는 (1)과 다르게 글자마다 끊어서 읽어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문장을 자연스럽게 띄어 읽는 방법

- 글자마다 끊어서 읽지 않습니다.
- 글을 쓴 사람이 말하려는 내용을 떠올리며 읽습니다.

소단원 2

통합 글의 의미를 생각하며 읽기

96~97쪽

- 1 머리 모양 2 ③ 3 세수를 하고
4 나무
5 (1) 흔들흔들 (2) 꼬불꼬불 (3) 강충강충
6 만족스러움 7 (1) ② (2) ① (3) ③
8 ①

- 1 아저씨는 아침마다 머리카락으로 머리 모양을 다양하게 만들며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 ‘새들이 포르르, 머리카락 한 올이 쏘옥~’에서 새들이 머리카락 한 올을 물고 간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3 글 ①, ②에서 사용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 ‘다음 날’, ‘아침이면’입니다.

정답 친해지기 ‘시간을 나타내는 말’은 4단원에서 배웠습니다. 배운 내용을 떠올려 봅니다.

- 4 문장의 의미에 따라 띄어 읽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장 읽기 연습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리 내어 읽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뜻이 잘 드러나게 문장을 띄어 읽는 방법

- 문장의 내용을 생각하며 읽습니다.
- ‘누가(무엇이)’에 해당하는 말 뒤에서 조금 쉬었다 읽습니다.
-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조금 더 쉬었다 읽습니다.
- 흥내 내는 말은 생동감 있게 읽습니다.

- 5 각각 거미가 머리카락에 매달려 흔들리는 모양, 머리카락이 말린 모양, 토끼가 뛰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 2 '치은', '키웁', '피읍', '히은'으로 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또한 쓴 글자와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소리 내어 읽으며 살펴봅니다.
- 3 띄어 읽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링링의 마음이 잘 드러나도록 자연스럽게 읽어 보고 ∨와 ∽를 해 봅니다.
- 4 반대말은 낱말의 뜻이 반대인 낱말입니다. '뛰어가다-빠르다'는 반대말이 아닙니다.
- 5 운동장에서 모래 장난을 한 손은 더러웠고, 비누로 씻은 손은 깨끗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에는 '더러웠다'가, ㉡에는 '깨끗했다'가 들어가야 합니다.

단원 평가

101~103쪽

- 1 (2) ○
- 2 예 비누칠을 할 때는 수도꼭지를 잠급니다.
- 3 예 보호 장비 없이 킥보드를 타면 위험해. 꼭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조심히 킥보드를 타야 해.
- 4 나 혼자 반짝 5 ㉠ 6 (3) ○
- 7 ㉠ 8 (1) 팔 (2) 옷 9 ㉡
- 10 못을 11 ㉤ 12 ㉣
- 13 ㉡ 14 예 정말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소방관이 갈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 15 예 개는 ∨혀로 ∨더위를 식힙니다. ∨혀를 ∨입 밖으로 쪽 내밀어 ∨몸을 시원하게 만들지요.
- 16 ㉡ 17 풀었어요
- 18 (1) ㉢ (2) ㉡
- 19 ㉢ 20 (2) ×

- 1 종이의 뒷면을 다시 쓰거나 다른 부분에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등 문제 상황과 해결 방법을 밝혀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말해 주는 문장이 알맞습니다.
- 2 제시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떠올리고 자유롭게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손 씻을 때 물을 틀어 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 3 그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떠올린 후 그림 속 아이에게 해 줄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써 봅니다.

채점 기준 그림 속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 쓰고, '보호 장비를 착용한다.',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지 않는다.' 등의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떠올려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 4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쓰레기를 주울 때는 혼자 반짝 빛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5 여럿이 함께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도와줄 때 모두가 반짝반짝 빛납니다. 반면, 별은 혼자 반짝 빛납니다.
- 6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까닭을 밝혀 자신이 말하려는 내용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 7 '같다'와 '갸다'는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낱말로, 이와 같은 낱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글자를 소리 나는 대로 쓰면 안 됩니다.

정답 친해지기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낱말 예

'같다'와 '갸다'는 모두 [갸따]로 소리가 나지만 뜻이 서로 다르므로 주의해서 써야 합니다.

• 같다: 서로 다르지 않고 하나이다.

예 나는 친구와 키가 같다.

• 갸다: '가다(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다.)'의 과거.

예 어제는 도서관에 갸다.

- 8 '팔'과 '옷'은 글자와 소리가 다른 낱말이므로 받침에 주의하여 바르게 씁니다.
- 9 '밤'과 뜻이 반대되는 낱말인 '낮'은 [나]으로 소리 나지만 받침에 'ㅈ'을 씁니다.
- 10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낱말의 뜻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모술]로 읽지만 '못을'로 씁니다.

정답 친해지기 모든 글자를 소리 나는 대로 쓰면 안 되는 까닭

• 낱말을 소리 나는 대로만 쓰면 읽는 사람이 뜻을 알기 어렵습니다.

•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낱말을 바르게 구별할 수 없습니다.

- 11 '갸잇'으로 써야 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① 꽃: [꼇]으로 소리 나지만 '꽃'으로 씁니다.

② 숯: [숯]으로 소리 나지만 '숯'으로 씁니다.

③ 말다: [말따]로 소리 나지만 '말다'로 씁니다.

④ 창밖: [창밖]으로 소리 나지만 '창밖'으로 씁니다.

12 소방차에 많은 물을 가지고 다닐 수는 없어서 도로에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소화전을 만들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13 (나)는 말하려는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의미 단위로 띄어 읽었습니다.

14 장난 전화 신고를 받고 소방관이 출동하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방관이 갈 수 없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재점 기준 소방서에 장난 전화를 하면 안 되는 까닭을 글 속에서 찾아서 써야 합니다. 글 속에서는 장난 전화 신고 때문에 소방관이 출동하면 그 사이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없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이 내용을 담아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15 문장의 뜻이 잘 드러나도록 자연스럽게 띄어 읽어 봅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는 좀 더 쉬어 읽습니다.

16 머리카락은 ‘올’이나 ‘가닥’으로 그 수를 셉니다.

정답 친해지기 ① ‘통’은 편지나 서류, 전화 따위를 세는 단위입니다. 수박을 셀 때에도 씁니다.
 ③ ‘쌈’은 바늘을 묶어서 세는 단위입니다.
 ④ ‘다발’은 꽃, 푸성귀, 돈 따위의 묶음을 세는 단위입니다.
 예 장미꽃 한 다발.
 ⑤ ‘컬레’는 신, 양말처럼 짝이 되는 두 개를 한 벌로 세는 단위입니다.
 예 구두 한 컬레.

17 ‘묶다’의 반대말은 ‘풀다’로 ‘묶은 것을 그렇지 아니한 상태로 되게 하다.’는 뜻입니다.

정답 친해지기 • 끊었어요: ‘실, 줄, 끈 따위의 이어진 것을 잘라 따로 떨어지게 해요.’라는 뜻입니다.
 예 실 전화기의 실을 잘라 끊었어요.
 • 이었어요: ‘두 끝을 맞대어 붙이다.’라는 뜻입니다.
 예 끊어진 실을 묶어서 이었어요.

18 새들이 머리카락 한 올을 물고 가서 머리카락이 아홉 가닥 남은 아저씨는 머리카락을 세 개씩 묶었습니다. 또 거미가 매달려서 머리카락이 여덟 가닥 남았을 때는 가르마를 땀습니다.

19 글의 의미에 따라 띄어 읽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글자마다 천천히 띄어 읽으면 오히려 문장의 뜻을 이해하기 힘들어집니다.

20 아저씨의 머리카락이 빠진 까닭은 새와 거미 때문이라고 글에 나와 있으므로 이것을 궁금해하는 것은 알맞지 않습니다.

7. 무엇이 중요할까요

핵심 확인 문제

106쪽

- | | | |
|------|------|---------|
| 1 설명 | 2 제목 | 3 (2) ○ |
| 4 × | 5 느낌 | |

준비

배울 내용 살펴보기

107쪽

- | | | |
|------|-----|---------|
| 1 ② | 2 ② | 3 (3) ○ |
| 4 창민 | | |

- 1 두 아이는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색종이로 한복을 접고 있습니다.
- 2 그림의 남자아이는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을 잘 듣고 따라 했기 때문에 만들기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 3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 4 해나는 설명하는 글을 써 본 경험을 말했습니다.

소단원 1

기본 무엇을 설명하는지 생각하며 글 읽기

108쪽

- | | | |
|------|-----|--------|
| 1 독도 | 2 ② | 3 ②, ⑤ |
| 4 ㉠ | | |

- 1 이 글의 제목은 「독도」입니다.
- 2 독도는 우리나라 동쪽 끝에 위치한 섬입니다.
- 3 이 글에서는 독도의 위치와 독도의 구성, 동도와 서도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4 주민을 위한 숙소가 있는 섬은 서도입니다.

정답 친해지기 글에서 설명하는 동도와 서도

동도	• 동대와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시설이 있다. • 독도를 지키는 경비대가 있다.
서도	• 주민을 위한 숙소가 있다. • 땅에 스며든 물이 땅 밖으로 모이는 곳이 있다.

소단원 1

통합 글을 읽고 새롭게
안 점 말하기

109~110쪽

- 1 (1) ○ 2 ①
3 (1) ② (2) ① 4 재인
5 ④ 6 자연, 자연 7 (1) ×
8 예 내가 쓰고 있는 물건이 자연의 동물과 식물
을 본떠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1 글 ①, ②에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말은 ‘본떠 만들었습니다’입니다.
2 글 ①, ②에서는 문어나 민들레씨 같은 자연에 있는 동물과 식물을 본떠 만든 물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글에서 소개하는 대상을 찾을 때에는 글의 제목을 살펴보거나 글에서 반복하여 나오는 낱말을 찾아봅니다.

- 3 어디에나 잘 달라붙는 문어의 빨판을 보고 칫솔걸이를, 털을 이용해 천천히 떨어지는 민들레씨를 보고 낙하산을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4 제목에는 설명하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글에서 반복하여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 설명하는 대상을 찾아봅니다.
5 도꼬마리 열매에 갈고리 모양의 가시가 많아서 새나 짐승의 털에 잘 붙는다고 하였습니다.
6 글에서 자연의 모습을 본떠 만든 물건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은 발명왕」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7 도꼬마리 열매가 잘 자랄 수 있는 방법은 글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8 글을 읽고 새롭게 안 점이나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써 봅니다.

채점 기준 글을 읽고 새롭게 안 점이나 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완성된 문장의 형태로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글을 읽고 새롭게 안 점을 찾는 방법
• 글의 제목을 살펴보거나 글에서 반복하여 나오는 낱말이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글에서 소개(설명)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 소개하는 대상의 어떤 점을 설명하고 있는지 찾아봅니다.

소단원 2

기본 겪은 일을 정리하는
방법 알기

111~112쪽

- 1 ① 2 ③ 3 이름표
4 (1) × 5 (3) ○ 6 ①, ④
7 예 자신 있다. / 자신만만하다. 8 ④
9 예 친구와의 약속 시간을 깜빡해서 당황했던 적이 있어.

- 1 ‘나(준수)’는 책가방을 탈탈 털어서 필통을 찾았습니다.
2 ‘나(준수)’는 ‘내가 또 필통 잃어버리나 봐라!’라고 하면서 다시는 필통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 ‘나(준수)’는 새로 산 필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필통에 초강력 끈적 대마왕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4 마음을 표현할 때에는 ‘즐거웠다.’, ‘재미있었다.’라고만 표현하지 않도록 합니다.
5 ‘나(준수)’가 필통을 자주 잃어버렸기 때문에 쌍둥이 누나들은 ‘나(준수)’를 놀리려고 필통도 잘 다녀왔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6 ‘나(준수)’는 필통은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가져 왔지만 알림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글 ③, ④에서 ‘나(준수)’가 겪은 일
• 쌍둥이 누나들이 학교 다녀온 준수를 놀렸다.
• 새로 산 필통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져왔다.
• 알림장을 잃어버렸다.

- 7 ‘나(준수)’는 자신 있게 가방을 열어젖혔습니다.
8 ‘나(준수)’는 알림장을 잃어버려서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9 ‘나(준수)’가 겪은 일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서 쓰거나 ‘나(준수)’가 느낀 마음과 비슷한 마음이 들었던 다른 경험을 떠올려서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이야기의 주인공 준수처럼 물건을 잃어버렸던 경험을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더 나아가 이야기의 주인공 준수가 느낀 당황스러운 마음을 느꼈던 다른 경험을 써도 정답으로 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겪은 일을 정리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 겪은 일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 비슷한 마음이 들었던 다른 경험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소단원 2

통합 겪은 일이 잘 드러나는 글 쓰기

113쪽

1 수목원

2 ④

3 ②

4 (1) 예 짝조름한 우영이 많아서 김밥이 맛있었다. / (2) 예 고소한 냄새가 솔솔 나서 김밥이 맛있었다.

- 1 현장 체험 학습으로 수목원에 다녀와서 쓴 글입니다.
- 2 친구들과 함께 집에 가서 신나게 놀았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이 글의 글쓴이가 겪은 일을 차례대로 정리해 보기

- ① 버스를 타고 수목원으로 현장 체험 학습을 갔다.
- ② 할머니께서 싸 주신 김밥을 친구들과 나누어 먹었다.
- ③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했다.

- 3 더 놀고 싶었는데 아쉬웠다고 하였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글 속에서 글쓴이가 겪은 일과 글쓴이가 느낀 마음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 4 '맛있었다.'와 같은 단순한 느낌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여 문장을 바꾸어 써 봅니다.

채점 기준 '김밥이 맛있었다.'에서 김밥이 어떻게 맛있었는지 구체적이고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정답으로 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겪은 일이 잘 드러나게 글을 쓰기 위해서는 겪은 일과 연관 있는 생각이나 느낌이 드러나게 글을 써야 합니다. 이때 '즐거웠다.', '재미있었다.'와 같은 단순한 표현보다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무엇이 어떠하였는지 생각하면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국어 활동

114~115쪽

1 사진, 예의

2 (2) ×

3 ㉠

4 (3) ○

5 카드놀이, 예 흥미롭게 느껴졌다

6 ㉡

7 예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신 음식이 달콤한 사탕보다도 맛있었다.

1 이 글은 사진을 예의 있게 찍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 (2)의 내용은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3 사진을 찍을 때 빛이 얼마나 나는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있었던 일에 대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5 그림 ㉡에서 아이들은 카드놀이를 하고 있고, 생각이나 느낌에 '재미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재미있었다.'라는 표현을 더 구체적으로 써 봅니다.

6 아버지께서 밥을 차려 주신 상황입니다.

7 무엇이 어떻게 맛있는지 자세하게 드러나도록 생각이나 느낌을 써 봅니다.

채점 기준 단순히 '맛있다', '좋다'가 아닌 구체적인 표현을 넣어, 아버지께서 해 주신 음식을 먹을 때 들 수 있는 생각이나 느낌을 문장으로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실천

배운 내용 마무리하기

116쪽

1 (1) ① (2) ②

2 버리지 않고 다시

3 ㉢

4 (3) ○

5 (1) 힘들어요 (2) 귀찮아요 (3) 신나요

1 '나눠 쓰기'는 나에게 필요가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한 물건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바꿔 쓰기'는 서로에게 필요한 물건을 바꾸어 쓰는 것입니다.

2 쓸 수 있는 물건을 버리지 않고 다시 쓰는 것이 '다시 쓰기'라고 했습니다.

3 두 친구는 동네에서 열리는 아나바다 행사에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4 '즐거웠어.'와 '재미있었어.'는 겪은 일과 그렇게 느낀 까닭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5 (1) 웃는 그림과 '힘들어요'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2) 놀란 그림과 '귀찮아요'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3) 우는 그림과 '신나요'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단원 평가

117~119쪽

- 1 ㉠ 2 (1) ㉠ 3 ㉡
4 독도 5 자연을 본떠 만든 물건
6 (3) × 7 ㉡ 8 ㉡
9 (1) ㉠ 10 ㉠ 11 ㉢
12 ㉣
13 예 생일 선물로 받은 축구공을 깜빡하고 놀이터에 두고 왔는데, 다시 가 보니 축구공이 사라지고 없어서 정말 속상했다. 14 ㉡
15 (1) ㉡ (2) ㉠ 16 ㉡
17 (1) ㉠ (2) ㉡ 18 ㉠
19 지환
20 예 오늘 친구들과 함께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 잡기를 했다. 낙엽을 하나도 못 잡은 건 섭섭했지만 친구들과 신나게 놀 수 있어서 좋았다.

- 1 아이 ㉠은 설명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따라서 종이 접기를 하고 있지만, 아이 ㉡은 설명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2 ‘접은 색종이를 가위로 자르세요.’라는 설명에 따라야 합니다.
3 독도에 땅에 스며든 물이 땅 밖으로 모이는 곳이 있다는 내용은 제시된 부분에 나오지 않습니다.
4 이 글은 ‘독도’에 대해 설명하는 글입니다.
5 이 글은 민들레씨와 도꼬마리 열매와 같은 자연을 본떠 만든 물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 쉽게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물건은 새나 짐승의 털에 잘 붙는 자연의 특성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7 글을 읽고, 비행기에서 안전하게 땅으로 내려올 수 있는 낙하산의 쓰임새는 알 수 있지만 낙하산을 만든 때는 알 수 없습니다.
8 이 글은 사진을 찍을 때 지켜야 할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제목이 없는 글에서 설명하는 대상을 찾으려면 글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낱말이나 내용을 찾아 보거나, 글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 9 글에서 사진을 찍을 때 내는 빛이 작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 10 겪은 일과 그때의 마음을 함께 생각하여 쓰고, 마음을 표현할 때는 ‘즐거웠다.’, ‘재미있었다.’라고만 표현하지 않도록 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겪은 일을 정리하는 방법

- 언제,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지, 그때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 마음을 표현할 때는 ‘즐거웠다.’, ‘재미있었다.’라는 표현만 쓰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표현합니다.

- 11 ‘나’는 책가방을 탈탈 털어서 필통을 찾고 있습니다.
12 필통을 잃어버려서 새로 사 달라고 한 것이 벌써 세 번째이므로, 엄마께 다시는 필통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새 필통을 샀을 것입니다.
13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을 떠올려 보고,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생각해서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주인공처럼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을 떠올리고, 그 경험과 그때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 14 준수는 “알림장 잘 써 왔어?”라는 엄마의 물음에 알림장을 꺼내려고 가방을 열어젖혔습니다.
15 준수는 자신있게 가방을 열어젖혔지만 알림장이 없는 것을 보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16 현장 체험 학습을 간 일을 쓴 글입니다.
17 친구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수목원으로 간 것은 인물이 겪은 일이고, 재미있었다는 것은 나무의 이름을 보고 들었던 인물의 마음입니다.
18 ‘좋았다’라는 표현만 하지 않고 왜 그런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그 까닭을 덧붙여 쓰면 느낌이 더 잘 드러납니다.
19 현지는 겪은 일만 말하고 겪은 일과 관련된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20 자신이 겪은 일과 그때의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생각해서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자신이 겪은 일과 그때 들었던 생각이나 느낌을 구체적으로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겪은 일이 잘 드러나게 글을 쓸 때에는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겪은 일과 관련된 생각이나 느낌이 드러나게 글을 써야 합니다.

8. 느끼고 표현해요

핵심 확인 문제

122쪽

- 1 × 2 인물 3 마음
4 (1) ○ (2) ○ 5 ○

준이 배울 내용 살펴보기

123쪽

- 1 ② 2 ⑤ 3 (1) ○
4 미안해
5 예 친구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쪽지를 쓴 준이의 행동이 아주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다.

- 준이와 노는 건 정말 즐겁다고 했으므로 신이 나서 한하게 웃는 표정이 어울립니다.
- 준이와 싸우고 속상한 마음이 든 것을 ‘마음이 그랬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 송이는 너무 화가 나 소리도 질렀다고 했으므로, 화가 나 소리를 질러서 얼굴이 빨개진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 준이는 송이에게 자신의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쪽지에 ‘송이야 미안해.’라고 썼습니다.
- 송이에게 쪽지를 준 준이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해서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준이의 행동을 보고 떠오르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완전한 문장으로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소단원 1

기본 장면을 떠올리며 시 낭송하기

124쪽

- 1 재채기 2 ③, ⑤ 3 유나
4 (1) ○

- 책상에 재채기를 했더니 책상이 감기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 ‘나’가 누워서 연필, 공책, 가방을 보니 연필, 공책, 가방도 자신처럼 힘들어서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 감기가 낫고 싶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한 말입니다.
- 감기에 들어 힘들고 아픈 ‘나’가 감기에게 오늘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얼른 낫게 해 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므로 힘없고 간절한 목소리로 낭송하는 것이 어울립니다.

정답 친해지기 시를 낭송할 때에는 시 속 인물의 마음을 생각하며 목소리 크기와 속도를 정합니다. 또한 연과 행이 바뀌는 부분을 띄어 읽고 반복되는 부분에서는 느낌을 살려 읽습니다.

소단원 1

통합 인물의 모습과 행동 상상하기

125~126쪽

- 1 예 슬펐을 것이다. / 화가 났을 것이다.
2 (1) ① (2) ② 3 ①, ② 4 (1) ○
5 브로콜리, 아이 6 ① 7 ①, ⑤
8 (2) ○

- 아이들이 싫어하는 채소 1위에 자신이 뽑혔다는 이야기를 들은 브로콜리는 화가 나고 슬펐을 것입니다.
- ㉠에서는 소시지처럼 분홍색으로 변한 브로콜리의 모습을, ㉡에서는 라면처럼 꼬불꼬불해진 브로콜리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 브로콜리는 소시지처럼 분홍색이 되어 보기도 하고, 라면처럼 뽀글뽀글 파마를 하기도 했으나 하나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 아이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효과가 없었으므로 여전히 아이들이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슬프고 시무룩한 표정일 것입니다.
- 이야기 속에서 말이나 행동, 생각을 하는 이를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글에 나오는 인물은 ‘브로콜리’와 ‘아이’입니다.
- 브로콜리는 이별 선물로 브로콜리수프를 만들었습니다.
- 브로콜리는 열심히 만든 브로콜리수프가 맛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기분이 좋고, 아이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희망도 생겨 기뻐할 것입니다.
- 자신이 사랑받을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브로콜리는 기분이 좋고 신났을 것입니다.

소단원 2

기본 연극을 보고 인물의
행동과 생각 알기

127~128쪽

- 1 ④ 2 ⑤ 3 (2) ×
4 ④ 5 ⑤
6 예 깨졌다. / 부서졌다.
7 (1) ② (2) ① (3) ③
8 예 내가 농부라면 공정한 판결은 내려 주지 않고 오히려 향아리를 빼앗은 원님에게 향아리를 돌려 달라고 말할 것이다.

- 1 '요술 향아리'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인물이 아닙니다.

정답 친해지기 이야기 속에서 말이나 행동, 생각을 하는 이를 '인물'이라고 합니다.

- 2 농부와 대감이 서로 요술 향아리가 자기의 것이라고 다투다가 원님에게 판결을 내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3 대감이 요술 향아리를 빼앗으려고 한 일은 원님이 요술 향아리를 가지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4 원님은 요술 향아리가 욕심이 나서 자신이 가졌고, 장면 ⑤와 같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장면 ⑥에서 원님은 자신의 것이 아닌 요술 향아리를 가진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5 대감은 농부가 발견한 요술 향아리가 탐이 나서, 요술 향아리가 자기 땅에 있던 것이니 자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 마지막 장면에서 원님이 향아리를 깨부숴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루어 짐작할 때에는 해당 상황이 나오는 장면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 7 각 장면에 나타난 인물의 말과 행동을 보면 인물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8 「요술 향아리」 속 인물 중 하나를 골라, 내가 그 인물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거나 말했을지 상상하여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요술 향아리」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한 명을 고르고, 자신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상상해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할지 구체적으로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소단원 2

통합 이야기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 나누기

129~130쪽

- 1 여우, 늑대 아저씨 2 ②
3 ③ 4 다음 5 (2) ○
6 ④, ⑤ 7 (1) ㉠, ㉡ (2) ㉢, ㉣
8 예 앞으로는 서로 인사하면서 친하게 지내길 바라요.

- 1 이 이야기에는 여우와 늑대 아저씨가 나옵니다.
2 늑대 아저씨네 옆집에 여우 가족이 이사를 와서 여우와 늑대 아저씨는 옆집에 사는 이웃입니다.
3 여우와 늑대 아저씨는 서로 알아보았지만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4 늑대 아저씨는 '다음에 또 보겠지.'라고 생각하였고, '여우는 다음에 하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5 여우는 자기가 먼저 인사하면 지는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6 옆집에 사는 사이인 것을 아는데 인사를 하지 않았고, 계속 마주쳤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7 서로 인사하기 전에는 불편하고 어색했지만, 인사한 후에는 반갑고 개운했을 것입니다.
8 자신이 이야기 속 인물이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고, 이야기 속 인물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을 정리하여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자신이 여우나 늑대 아저씨라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상상해 보고, 서로 아는 사이인데도 인사를 하지 않은 인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국어 활동

131쪽

- 1 (2) ○ 2 ㉠
3 후회스럽다, 부끄럽다 4 수민

- 1 날씨가 무척 추워서 손을 주머니에 넣고 몸을 움츠리고 학교에 가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장면을 떠올려야 합니다.
2 ㉠의 행동에서는 청년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3 청년은 자신의 행동을 부끄럽게 여기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 정답 친해지기** • ‘후회스럽다’는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칠 데가 있다는 뜻입니다.
- 예 거짓말을 한 것이 후회스럽다.
- ‘부끄럽다’는 떳떳하지 못하다 또는 수줍다는 뜻입니다.
 - 예 나는 거짓말을 한 내 자신이 부끄럽다. / 남 앞에 나서는 것이 부끄럽다.
 - ‘시시하다’는 신기할 정도로 묘하거나 훌륭한 데가 없고 하찮다. 또는 좀스럽고 찜찜하다는 뜻입니다.
 - 예 영화가 시시하게 끝났다. / 시시하게 굴다.
 - ‘답답하다’는 애가 타고 갑갑하다는 뜻입니다.
 - 예 소식을 몰라 답답하다.
 - ‘샘내다’는 샘하는 마음을 먹다. 또는 샘을 부리다는 뜻입니다.
 - 예 동생은 언제나 형을 부러워하고 샘냈다.
 - ‘행복하다’는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하다는 뜻입니다.
 - 예 행복한 사람
 - ‘수상하다’는 보통과는 달리 이상하여 의심스럽다는 뜻입니다.
 - 예 저 사람 행동이 수상하다.

4 이 이야기 속 청년에게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실천 배운 내용 마무리하기

132쪽

- 1 나, 동생 2 콧구멍 3 영준
4 ④ 5 (2) ○
6 (1) 표현해 (2) 구별해
7 (1) ② (2) ①

- 이 시에 나오는 인물은 ‘나’와 ‘동생’입니다. ‘강아지풀’은 인물이 아닙니다.
- 말하는 이는 강아지풀을 꺾어 와서 동생의 콧구멍에 대고 간질였습니다.
- 말하는 이는 잠든 동생의 콧구멍을 간질이면 동생이 깜짝 놀라서 깰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 예상했던 것과 달리 동생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당황했을 것입니다.
- 말하는 이가 강아지풀로 동생의 콧구멍을 간질였는데도 동생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했으므로 (1)의 장면은 시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시 「강아지풀」을 읽고 떠올릴 수 있는

장면 예

- 동생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장면
- 아이가 강아지풀을 꺾는 장면
- 강아지풀을 뜯은 아이가 동생에게 조심조심 걸어가는 장면
- 아이가 강아지풀을 동생의 코에 대고 간지럽히는 장면
- 동생이 반응이 없는 것을 본 아이가 당황하는 장면 등

6 (1)에는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언어나 몸짓 따위로 나타낸다는 뜻의 ‘표현해’가, (2)에는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갈라놓는다는 뜻의 ‘구별해’가 들어가야 합니다.

7 각 낱말의 뜻을 생각하여 선으로 이어 봅니다.

단원 평가

133~135쪽

- 1 ①, ⑤ 2 (2) × 3 (1) ○
4 예 감기에 걸렸다. / 감기에 걸려 누워 있다.
5 ①, ③ 6 (2) × 7 싫어하는
8 (1) ○ 9 ③, ⑤ 10 ③
11 ① 12 (1) ○
13 예 요술 향아리가 욕심이 난다고 빼앗다니 정말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백성을 위해 옳은 판결을 내려 주세요.
14 (1) ○ 15 불편해
16 예 내가 여우라면 처음 늑대 아저씨를 봤을 때 인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용기를 내 인사했을 것이다.
17 너무 가벼워서 18 ②, ⑤
19 ③ 20 ①

- 준이와 싸웠을 때 송이는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났을 것입니다.
- 송이는 혼자 그네를 탈 때 재미가 없고 마음이 텅텅 빈 상자 같고 허전하다고 하였습니다.
- 준이가 미안하다고 쓴 쪽지를 본 송이의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해 보면 송이가 어떤 행동을 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 이 시에서 ‘나’는 감기에 걸려 누워 있습니다.
- 이 시에서 ‘나’는 감기에 걸려 재채기를 하고 누워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시 「감기」를 읽고 떠올릴 수 있는 장면 ㉠

- 아이가 재채기를 하는 장면
- 아이가 아파서 누워 있는 장면
- 아이가 누워서 연필, 공책, 가방을 보는 장면 등

- 6 '나'가 다니는 학교가 어디인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를 낭송할 때는 시 속 인물의 모습을 상상하고, 인물의 마음을 생각하며 낭송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시 「감기」를 낭송하는 방법

- 감기에 걸렸던 경험과 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의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 감기에 걸려 재채기하는 시 속 인물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 시 속 인물의 마음을 생각하고 시의 분위기를 살려 낭송합니다.
- 반복되는 말의 느낌을 살려 읽습니다.

- 7 '나'는 아이들이 싫어하는 채소 1위에 자신이 뽑혔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평평 울었습니다.
- 8 '나'는 사랑받는 친구들을 다 따라 해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나'는 사랑받는 친구들을 따라해 보며 소시지처럼 분홍색이 되어 보기도 하고, 라면처럼 뽀글 뽀글 파마를 하기도 했습니다.

- 9 브로콜리는 아이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다른 친구들을 따라 해 보며 노력을 하였지만 효과가 없었으므로 어깨가 축 처지고 시무룩한 모습과 눈물이 그렇그런한 모습이 어울립니다.
- 10 '나'는 아이들에게 사랑받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모두 효과가 없었으므로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알맞지 않습니다.

정답 친해지기 이 시에서는 날씨가 추워서 몸을 잔뜩 웅크리고 학교에 가는 인물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 11 ㉠은 인물의 모습이 아니라 추운 날씨가 떠오릅니다.
- 12 원님은 요술 항아리가 욕심이 나서 자신이 가졌으므로 (1)의 생각이 어울립니다.
- 13 원님의 말과 행동을 보고 원님에게 어떤 말을 해 주면 좋을지 생각해서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욕심을 내면 안 된다거나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등 요술 항아리를 빼앗은 원님에게 해 줄 말을 생각해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 14 여우와 늑대 아저씨는 서로 인사를 하지 않아서 불편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 15 글 ㉡에서 여우와 늑대 아저씨는 불편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16 여우나 늑대 아저씨의 입장이 되어 자신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서 써 봅니다.

채점 기준 인사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고, 자신이라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생각해 완전한 문장으로 쓰면 정답으로 합니다.

정답 친해지기 이야기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는 방법

-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고 인물에 대해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표현해 봅니다.
- 자신의 이야기 속 인물이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고 인물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을 정리해 봅니다.

- 17 깃털이 너무 가벼워 바람에 모두 날아가 버렸다고 하였습니다.

- 18 말은 한번 내뱉으면 주위 답을 수 없다는 할아버지의 말은, 말을 신중히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교훈을 줍니다.

- 19 시에 동생이 잠에서 깨 재채기를 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 20 생각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아 당황한 마음이 어울립니다.